

신용카드의 자금유통성 사용목적과 가계관리

Motive of Revolving Credit in the Use of Credit Card and Financial Management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강사 이영호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임정빈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Han-Yang University

Lecturer : Young-Ho, Lee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Han-Yang University

Prof. : Jeong-Bin, Im

〈목 차〉

- | | |
|--------------|-------------|
| I. 서론 | V. 논의 및 제언 |
| II. 선행연구고찰 | VI.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V. 분석결과와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e of revolving credit card in the use of credit and financial management. The Samples were composed of 239 housewives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of follows :

- 1) Two-thirds of repondents used credit card over optimum standards.
- 2) Although the level of the motive of revolving credit in the use of credit card was not high, it was negative to financial management in the case of low-income household.
- 3) The contents of consumer education has to provide according to a different income class.

I. 서론

가계는 한 나라의 경제주체로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가족원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가족은 영속적인 집단이므로 주어진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때 장기적인 발달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계의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은 '일정한 경제적 생활수준이 지속되는 상태'(황덕순, 1993)로 정의되는데 지속적인 물가상승의 상황에서는 실질소득의 감소효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가계일자리라도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을 예측하게 된다. 이는 일종의 재정적 위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계의 재정관리는 재정적인 위기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으므로(Deacon & Firebaugh, 1991) 가계가 소득/소비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재정관리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이 예측될 때 대다수의 가계는 소비수준을 줄이는 것과 소득을 확대하는 것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재정적 위기에 대처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수준을 줄이는데는 고통이 뒤따르며 대다수의 가계는 과거와 같은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소득을 확대시키고자 할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을 확대시키는 방법은 저축을 인출하여 과거의 소득을 현재화하거나, 소비자 신용을 이용하여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하는 방법 중에서 택하게 된다. 저축을 인출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인출된 저축을 다시 원상대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저축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의 재정적 위기에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저축을 인출하는 것보다 보존하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신용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약속이 지켜진다면 이는 신용을 높여주는 것이 된다(가정관리학 연구회, 1991). 따라서 많은 가계는 저축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소비자 신용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소액의 소비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더욱 뚜렷해진다. 일상의 소비생활에서 소액의 소비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매체로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어 많은 가계에서 이미 소비자 신용은 손쉽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통한 상품의 구매나 현금서비스는 모두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용카드의 지속적인 사용은 저축의 인출과 마찬가지로 비상시의 융통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되며 이는 곧 머지 않은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게 되며 가계관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사회는 높은 물가상승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경제행위를 재점검, 재정비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미 여러기업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순환상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계도 자신의 경제행위를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일반 가계에서는 신용카드가 자금융통을 위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신용카드의 자금융통적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금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자금융통을 위한 목적으로한 신용카드의 사용

신카드의 사용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일정기간내의 소득이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소득/소비의 불균형을 해결하게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둘째, 일상소비생활에서 사회적 경제적 불편함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서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 사용의 편리한 점을 선호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체로 편리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금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이지만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자금압박이 있는 경우이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 또 다시 자금압박을 받게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채무를 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Canner and Cymak(1986)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대금지불패턴을 조사하여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목적이 자금유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즉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거의 완전히 지불하는 소비자들과 그렇지 않은 소비자를 구별함으로써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금유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간주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자금을 유통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은 연령이 낮은 소비자들과 유색인종, 그리고 스페인계 가족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Danes & Hira, 1990; Mathews & Slocum, 1972; 이동진, 1990)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 목적을 편리성과 할부목적으로 구분하였는데 할부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대금의 지불을 분할함으로써 지불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므로 현재의 자금에 대한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Danes and Hira(1990)도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여 편리성 사용에 대한 이유와 할부목적 사용등 2가지를 그 사용 이유를 구분하였다. 고소득, 고학력자들은 신용카드가 할부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도 할부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hews and Slocum(1972)은 신용카드의 사용 목적을 편리성 목적과 할부 목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의 사용목적은 편리성에 두며 저소득층일수록 할부사용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동진(1990)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의 소득

이 높을수록 편리성에 목적을 두며 저소득층일수록 할부사용에 목적을 둔다고 하여 Danes and Hira(1990)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금을 유통하기 위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 연령, 교육수준, 카드수, 인종, 가족수로 나타났다.

2. 신용카드의 사용량

신용카드 사용량에 대한 많은 연구는 사용빈도와 사용대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신용카드 사용과 연령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빈도가 많은 경우는 젊은층이고, 은행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계층은 중년층이라는 Plummer(1971), McAlister & Kinsey(1979)의 보고가 있다. 그러나 연령이 높은 층에서 사용률이 높다는 연구보고(Hirschman & Goldstucker, 1978)도 있으며, 신용카드를 활발히 이용하는 집단은 30대 주부와 20대 여성이라는 결과(横山二郎, 1983)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과 연령과의 상관관계는 일치되는 결과를 찾을 수 없고, 신용카드가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과 신용카드 사용과의 관계에 관하여 Hull(1978)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고 Hirschman & Goldstucker(1978)는 고소득층의 가족이 저소득층에 비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이동진은 저소득층은 내구재나 필수품에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잦은데 비해, 사용액은 많지 않으며, 또한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카드의 복수소유가 많고 따라서 휴면카드도 많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항상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Awh & Waters(1974)는 소득이 신용카드 사용을 결정하게 하는 변수로서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고 하였다. 박대순(1991)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사용액의 크기는 차이가 없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고 하였다.

Hirschman(1976)은 카드의 소지는 높은 소비지출

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Katona(1968)는 조사대상자들이 그들의 소득을 어떻게 기대하는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구매형태를 조사한 결과, 미래의 소득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내구재를 50%나 더 구매하였으며, 신용구매도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3배 정도 더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연령, 카드수, 소득수준, 교육수준,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신용카드의 사용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용카드 사용과 가계관리

신용카드 사용은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기적절히 충족시켜주어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미리 계획된 사용이 아니었을 경우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반복적 사용을 초래하므로 현명한 사용과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리적 가계관리에 역행하게 된다.

De Salvo(1977)는 화폐를 저축하듯이 개인의 신용도 좋은 신용상태를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Dunsing 등(1973)도 가정의 현재소득, 장래의 소득 가능성, 가족의 크기, 가족생활주기단계, 가족원의 절약습관에 따라 신용이용의 양 즉 신용카드 사용량을 정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며 정확한 예산수립은 기본적인 필수품과 저축을 위해 요구되는 금전의 양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용카드 사용량을 미리 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처음으로 신용을 이용하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신용사용이 과다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신용사용량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가처분소득이나 순소득, 그리고 생활비이다.

Corrigan(1982)은 빚을 갚거나 신용카드의 대금을 갚을 때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순소득의 2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소득계층이나 그 이하의 소득을 갖는 특이한 상황에서는

임의소득의 1/3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靑木茂(1970)도 신용이용에 있어서 가처분소득의 1할 이내를 안전권, 2할을 한도라고 제시하였다. 서병숙 등(1991)도 가정의 가처분소득 중 할부구매의 지불로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하여도 최고한도 20%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임정빈·이영호(1992)는 이에 대하여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1/3이상이 신용카드사용의 안전선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할 이상이 되는 경우는 27.1%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의 자금용통동기가 클수록 연체하는 빈도나 생활비에서 신용카드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가 가계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변수로 조작설정하고자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선행연구결과 자금용통성동기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선행관련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로서 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수, 연령, 월평균 1인당 가족소득, 교육수준, 미래에 대한 재정적 전망, 신용카드의 자금용통성 사용목적,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신용카드사용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카드수, 연령, 가족수,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 월평균 가계소득, 월평균 생활비에 관해서는 개방형으로 질문하였고, 교육수준은 연속형 척도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미래에 대한 재정적 전망은 5점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신용카드의 자금용통성 사용목적은 '지불하기 전

에 한 두달간 현금을 자유로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구매하고픈 것이 있으나 현금이 없을 때 사용한다', '목돈 없이 적절한 시기에 고가의 물품을 할부구입할 수 있으므로 사용한다', '주로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한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생활을 꾸려 나가기가 어려우므로 사용한다'이다. 이들은 Likert방식의 4점 척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4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였고, 문항간 내적 합치도인 Cronbach의 alpha는 .783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인당 가족소득(월평균 소득/가족수)'과 '신용카드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langle 신용카드 사용액/가계소득 $\rangle \times 100$)과 '신용카드사용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langle 신용카드 사용액/생활비 $\rangle \times 100$)은 각각 연구자가 계산한 값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가계이며 조사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대부분의 재정관리를 수행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는 1995년 1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모두 239가계이다.

분석방법은 SPSS/PC를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N(%)	M	비고
연령(세)	- 29	30 (12.6)	40.30	Min=23 Max=63 Std=8.98
	30 - 39	79 (33.0)		
	40 - 49	90 (39.7)		
	50세 이상	40 (16.7)		
가족수(명)	- 3	64 (26.8)	4.02	Min=1 Max=8 Std=1.09
	4 - 5	157(65.7)		
	6 이상	18 (7.5)		
소득(만원)	- 150	65 (27.1)	255.50	Min=50 Max=999 Std=146.12
	151 - 250	90 (37.6)		
	251 - 350	47 (19.9)		
	351 이상	37 (15.4)		
학력	중졸이하	16 (6.7)	13.50	Min=0 Max=23 Std=2.73
	고 졸	110(46.0)		
	전문대졸 이상	113(47.3)		
카드수	- 2	80 (33.5)	3.87	Min=1 Max=15 Std=273
	3 - 5	107(44.8)		
	6 이상	52 (21.8)		
미래제정 기대	비관적(2점이하)	23 (9.6)	3.75	Min=1 Max=5 Std=.97
	보통(3점)	62 (25.9)		
	낙관적(4점)	100(41.8)		
	매우 낙관적(5점)	54 (22.6)		
사용목적	- 10	66 (27.6)	12.10	Min=5.0 Max=20.0 Std=2.74
	11 - 13	108(45.3)		
	14 이상	65 (27.1)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만원)	- 9	52 (21.8)	31.11	Min=0 Max=200 Std=35.03
	10 - 19	48 (20.1)		
	20 - 49	87 (36.4)		
	50 이상	52 (21.8)		
월평균 생활비(만원)	- 50	37 (15.5)	130.00	Min=10 Max=500 Std=78.05
	51 - 100	87 (36.4)		
	101 - 150	54 (22.7)		
	151 - 200	33 (13.7)		
	200 이상	28 (11.7)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신용카드의 자금 융통성 사용목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들의 자금융통성 사용목적은 평균 12.1점으로 나타났으며, 제변수가 사용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미래의 재정기대($\beta = -.258$), 카드수($\beta = .176$), 1인당 가족소득($\beta = .140$), 학력($\beta = -.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총분산의 12.7%를 설명하고 있다.

<표 2> 사용목적에 대한 중회귀분석

일반적 특성	사용목적	
	b	β
연령	-.033	-.111
1인당 가족소득	-.009	-.140*
학력	-.134	-.137*
카드수	.210	.176**
미래재정기대	-.736	-.258***
회귀상수	17.812	
F값	6.24***	
R ²	.127	
D-W	1.87	

*P<.05 **P<.01 ***P<.001

미래의 재정기대와 1인당 가족소득 그리고 교육수준은 자금융통성 목적과 負的 관계를 보임으로써 미래의 재정기대가 낙관적이지 않을수록, 1인당 가족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금융통성 사용자가 많다는 연구결과(Mathews & Slocum, 1972; 이동진, 1990)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카드수는 자금융통성 사용목적과 正的 관계를 보임으로써 신용카드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매

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은 사용목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용목적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용목적이 사용액에 미치는 영향은 <표 3>과 같다. 카드수($\beta = .292$), 1인당 가족소득($\beta = -.240$), 학력($\beta = .155$)의 순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총분산의 약 24%가 설명되었다.

<표 3> 사용량에 대한 중회귀분석

일반적 특성	사용목적	
	b	β
연령	.190	.048
1인당 가족소득	.199	.240***
학력	.196	.155*
카드수	4.497	.292***
미래재정기대	3.93	.106
자금융통	.153	.118
회귀상수	-66.77	
F값	11.17***	
R ²	.239	
D-W	1.91	

*P<.05 **P<.01 ***P<.001

카드를 많이 소지할수록 사용액이 많았다. 카드의 소지는 높은 소비지출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한 Hirschman(197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신용카드가 구매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자극제로서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가족소득이 많을수록 카드사용액이 많았다. 소비의 원천으로서 소득의 양은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지불능력을 의미하므로 1인당 가족소득은 신용카드의 사용량을 결정짓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많았다. 이것은

박대순(1991)의 결과에 일치하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간에 따른 소득배분의 매체인 신용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연령과 미래재정전망 그리고 자금유통적 사용목적은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신용카드의 자금유통성 사용목적은 가계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금유통성 사용목적, 그리고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표 4>)과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표 5>)을 종속변수로 결정하였다.

먼저 전체의 평균으로서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나타났으며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제 변수중 카드수($\beta=.178$), 학력($\beta=.169$), 1인당

<표 4> '신용카드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연령	-.001	-.067
1인당 가족소득	-5.72E-04	-.151*
학력	.010	.169*
카드수	.013	.178**
미래재정기대	.018	.108***
자금유통목적	.008	.137*
회귀상수	-.119	
F값	4.68***	
R ²	.116	
D-W	1.97	

* P<.05 **P<.01 ***P<.001

가족소득($\beta=-.151$), 자금유통성 목적($\beta=.137$)의 순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전체의 약 12%를 설명하고 있다. 카드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금유통성 목적의 정도가 클수록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가족소득은 負의인 영향을 미쳐 1인당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결과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속변수로 한 <표 3>의 분석결과와 두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1인당가족소득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표 3>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던 자금유통적 목적이 유의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전체 평균은 32%로 나타났으며, 3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64.7%나 차지하여 임정빈·이영호(1992)의 27.1%에 비해 매우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안전권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가계관리에서 신용카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에 따르면 독립변수로 투입한 제 변수중에서 자금유통적 목적($\beta=.180$)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자금유통적 목적이 클수록 '신용카드사용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5>의 결과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신용카드의 사용액'과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표 3>, <표 4>의 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던 1인당가족소득, 학력, 그리고 카드수의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표 4>의 결과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자금유통적 목적'의 영향력이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5〉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b	β
연령	-.005	-.106
1인당 가족소득	-4.74E-04	-.048
학력	.016	.102
카드수	.014	.078
미래재정기대	.047	.106
자금용통목적	.028	.180**
회귀상수	-.220	
F값	2.98**	
R ²	.07	
D-W	1.91	

*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일반 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어떠하며, 자금용통성 사용목적과 사용액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신용카드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신용카드에 대한 자금용통성 사용목적의 정도는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1인당가족소득이 낮을수록, 미래의 재정기대가 낙관적이지 않을수록, 그리고 카드수가 많을수록 자금용통성 사용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31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1인당가족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카드수가 많을수록 사용대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14%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카드수가 많을수록, 미래재정기대가 낙관적일수록, 그리고 자금용통목적의 정도가 높을수록 신용카드사용대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으며,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64.7%로 나타나 전체의 2/3가량이 안전선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자금용통성사용목적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용카드의 사용목적은 자금용통성 목적에 국한한 것은 자금용통성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정도가 클수록 가계관리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정에 비추어 몇가지의 논의가 제기된다.

첫째,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미래의 재정기대가 낙관적이지 않은 경우에 자금용통성 사용목적의 정도가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몇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논리적으로 자금을 융통한다는 것은 융통한 액수이상의 지불능력을 스스로 예측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과는 반대로 미래의 재정에 대한 기대가 낙관적이지 않을수록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관리상 지불능력에 대한 검토없이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가지 해석은 미래의 재정적 기대가 미래의 소득증가라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감소로 인한 불안이 없다는 차원으로 반응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다. 이러한 추측을 따를 경우, 본 연구에서 미래의 재정에 대한 낙관적 기대변수에 일정 소득액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높게 반응한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저소득일수록 자금용통성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두가지의 해석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자금용통성 사용목적은 저소득이면서 미래의 재정기대도 낙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자금유통성 사용목적의 높을수록 가계관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속 변수를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하여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금유통적 사용목적의 영향이 차이있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절대액수에 대하여 자금유통적 사용목적은 유의한 변수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유의한($p=.0475$) 변수로 등장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더욱 유의한($p=.0092$) 변수로 나타났다.

가계관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가계의 총소득중 정기적 정액지출을 제외하고 주부가 가계관리를 위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의미에 가까운 생활비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금유통적 목적이 클수록 가계관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바꾸어 해석하면 생활비의 절대액이 부족한 저소득의 가계일수록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의 사용은 고소득의 경우와 저소득의 경우가 다른 사용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두가지의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는 가계관리적 측면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차별적 관리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먼저 가계관리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소득층의 경우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부정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관리에 대한 교육으로서 신용카드를 자금유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은 금전사원의 사용시기만을 바꾸어 주는 것이며, 자산의 확대가 결코 아니며, 사용상 비용이 든다는 점을 실례를 들어 계산을 해보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법론과 관련한 문제이다. 고소득의 경우와 저소득의 경우가 다른 사용패턴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패턴을 선형관계(linear relation)로 가정하고 회귀분석을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정보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수준을 통제하거나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통제없이 연구에 임할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많을수록 저축액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일반적 추론과는 달리 실증조사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많을수록 저축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신용카드의 사용액수도 높지만 저축액은 더욱 차이있게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사용패턴에 의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사용패턴이 가리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가계소득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액을 그대로 변수로 투입하기보다는 '인당 가족소득'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연구목적에 맞게 변환하여 사용할 경우,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변수의 조작사용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가정관리학회(1991). 『가족자원관리』, 한울아카데미.
- 2) 남명우(1987). "신용판매가 소비자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박대순(1991).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4) 서병숙·소연경(1991). 『신 가정경제학』, 수학사.
- 5) 이동진(1990). "은행계 신용카드 고객의 특성 및 소비패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6) 임정빈·이영호(1992). "서울지역 주부의 신용카드에 관한 지식, 사용동기, 관리행동간의 관계",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0권 2호. 245-261.
- 7) 채정숙(1980). "주부들의 저축형태에 관한 연구 - 대구시 가구를 중심으로-". 한사전문대 논문집 5권. 62-86.
 - 8)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1권 2호. 69-82.
 - 9) Canner, G.B. & Cynrak A.W.(1986). "Determinants of Consumer Credit Card Usage Patterns", Journal of Retail Banking. Vol.VIII, 9-18.
 - 10) Corrigan, E. B.(1982). 『Your Credit Rights : An Institutional unit on Consumer Credit Protection』,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 11) Danes, S.M. & Hira, T.K.(1990).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in the Use of Credit Card",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18. No.3, 223-235.
 - 12) Desalvo, L.J.(1977). 『Consumer Finance』, John Wiley & Sons, 77-96.
 - 13) Dunsing. M., Hafstrom, J.L. and Schnittgrund, K. P.(1973). 『Consumer Credit : Uses, Costs, Laws, Circula 1087』,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Univ. of Illinois.
 - 14) Hirschman, E.C.(1976). "Differences in Consumer Purchase Behavior by Credit Card Payment Syste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6, June, 58-66.
 - 15) Hirschman, E.C., and Goldstucker, J.L.(1987). "Bank Credit Card Usage in Stores: An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Retailing, 54(summer), 3-12.
 - 16) Hull, K. B.(1978). 『Differences in Consumer Credit Attitudes, Knowledge and Experiences among Married and Non - Married Woman in Des Moines Iow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17) Katona, G.(1968). "Consumer Behavior: Theory and Findings on Expectation and Aspir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20.
 - 18) Kinsey, J.(1981). "Determinants of Credit Cards Accounts : An Application of Tobit An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8, sep.
 - 19) Mandell, L.(1972). 『Credit Card Use in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 of Michigan.
 - 20) Mathews, H.L. & Slocum, J.W.(1972). "A Rejoinder to Social Class or Income". Journal of Marketing. Vol.36. 69-70.
 - 21) McAlister, R., and Kinsey, J.(1979). "Impact on Perceived Cost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Credit Cards Held", Proceedings of 25th Conference of American Council of Consumer Affairs, 166-178.
 - 22) Shepard, L.(1984). "Accounting for the Rise in Consumer Bankruptcy Rates in the United States : A Preliminary Analysis of Aggregate Data (1945-1981)",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8(2).
 - 23) 青木茂(1970). "家庭の經濟相談", 東京:有聲閣, 128.
 - 24) 横山二郎(1983). "クレジット産業と家計", 『國民生活』 13(10), 12-19.